

자 연은, 계절을 맞고 보내는 일에 사람처럼 힘겨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기대나 회한도 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겨울 내내 눈을 덮고서도 신음하지 않고, 봄을 맞아 꽃을 피워 올리고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만약 자연도 사람처럼, 하는 일마다 기대나 의도를 담는다면 자연의 순환에는 심각한 혼란이 따를 것이다. 실다고 버리고 좋다고 놀러갔다면, 마냥 봄꿈에 취해 여름 불 일이 없을 것이고, 여름 가을 겨울 또한 제멋에 겨워 한 세월을 온통 제멋으로 삼고 말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자연의 순환에는 그 어떤 의도나 희망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그냥 그렇게 맞고 보낼 뿐이다. 자연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들고 다닐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경건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작은 몸짓에도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반응한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한다. 자연은 그냥 그러할 뿐인데.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적 반응들에 대해 심하게 고민하거나 자학에 가까운 만큼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그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기도 하나. 그러다 언젠가는 온전히 자연을 달거나 아니면 죽음의 형태로라도 자연으로 돌아갈 테니까.



◇고적대에서 조망을 즐기는 취재진 너머 봉우리가 청옥산과 두타산의 정상이다. 고적대에서는 멀리 소백산까지 눈에 들어온다.



◇두타산에서 바라본 청옥산과 고적대. 군더더기 없는 한국의 정육에 비해 고적대는 돌담을 쌓은 듯한 바위 봉우리다.

걸음 닿는 곳마다 비로요 천왕



백두대간 속으로 <31>

원방재 → 백봉령

세찬 바람 겨울과 봄 사이 좌충우돌
원방재 호쾌한 능선 파도치듯 굽이쳐

강 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에 서 원방재로 오른다. 겨우내 얼음장 밑으로 숨죽여 흐르던 냇물이 얼굴을 내밀고 길동무를 해 준다. 내 귓속으로도 냇물이 흘러드는 것 같다. 마음 속에선 벌써 봄이 활랑댄다. 하지만 아직 두 다리는 하얀 겨울을 밟고 지난다.

난초의 잎을 그리는 붓끝을 따르듯 일도를 오르다 보면 원방재(690m)에 닿는다. 길은, 백두대간 동성마루를 넘지 않고 이기령까지 이어진다.

바람이 세차다. 겨울과 봄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것 같다. 땅거미가 밀려온다. 바람도 조금씩 겨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바람이 비껴가는

곳을 찾는다. 계곡이 끝나는 곳이 그곳이다. 제법 세찬 물줄기가 쏟아지며 얼음 계곡을 헤쳐 샘을 이루고 있다. 눈을 녹이지 않고도 끼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상첨화로 바람이 눈으로 계곡을 메워 놓아서 조금만 다지면 잠자리까지 간단히 해결되겠다.

또 간간히 눈발이 날린다. 올해는 봄 가뭄이나 산불 걱정은 덜 할 것 같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인 것 같다. 동해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라 생각해 본다. 한결 듣기가 편하다.

원방재에서부터 백봉령 사이에는 이름난 산이 없다. 하지만 실망할 일은 아니

다. 아차피 백두대간을 밟는다는 것은, 산보다는 산줄기,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한걸음 한걸음 닿는 곳 모두가 비로요 천왕이 아닐 수 없다. 낮은 봉우리 없이 어떻게 높은 봉우리를 오를 것이며, 내려서지 않고 어찌 오르기만을 바랄 것인가. 백두대간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금강산의 비로봉이든 이름 없는 작은 봉우리든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명 한명이 다 인류의 대표가 아닐 수 없다. 원방재에서 이어지는 대간 동성마루는

1000미터 이상까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시 서너번 크게 숨구웠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백봉령을 향한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닿는 백봉령 전까지는 오랜밤은 동해시, 원방은 정선군 땅을 밟아 나간다.

이 구간에서는 동쪽으로 시야가 열리면 어디서건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다. 겹겹이 펼쳐지는 능선들은 마치 동해 바다가 일어난 커다란 파도가 심없이 밀려오는 듯한데, 골짜기를 다 드러낸 겨울산이어서 그런지 그 형국은 대단히 호쾌하다.

아직 백두대간의 동성마루엔 눈이 깊다. 하지만 신설과 달리 녹고 얼기를 반복한 부분은 제법 단단하다. 실얼음판 디디듯 걸으면 빠지지 않고 몇걸음 옮겨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갑자기 허벅지까지 속 빠지게 되면 허탈과 낭패감이 몰려 밀려온다. 역시 걸음이 순조롭지 않다. 백봉령을 눈 아래 두고 또 하룻밤 대간에 몸을 누인다.

강원도 정선과 동해를 넘나드는 42번 국도 위의 고갯마루인 백봉령은 공식 지명으로는 백복령(白伏嶺, 780m)이라 불린다.

다. 하지만 <택리지>에는 백봉령(白鳳嶺)이라 표기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는 백복령(百福嶺)과 백복령(百複嶺)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일명 회복현(淮福峴)이라고도 덧붙였다. 회복현(淮福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바꾼 이름인 백복령(白伏嶺) 대신 여감이나 뜻도 우아한 백봉령(白鳳嶺)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 글도 그것을 따랐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적 영등은 최고 품질과 기쁜여운 자랑입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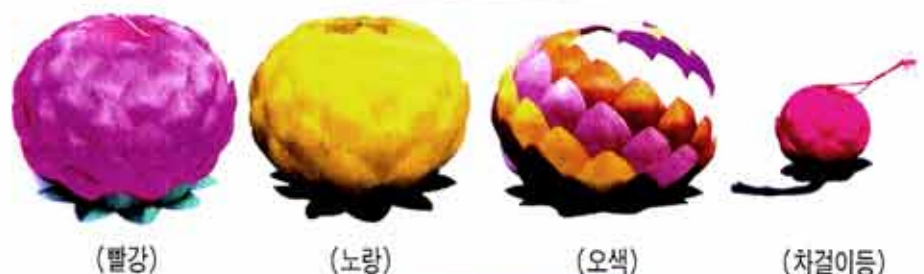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등(비판등) 실등



팔모조림등



만월등



안국영 캐즈메어(택어 제122168호) /
탈곡명 실승신인(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특허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훈공동 180-1